

2012 하천관리 정기세미나 개최



우리협회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2012 하천관리 정기세미나』 행사가 2012년 11월 16일(금)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및 공무원을 비롯한 산·학·연 등 하천분야 각계 전문가(종사자) 총 2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 2005년 첫 개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게 된 이번 세미나는 4대강 사업의 완료에 대한 그 의미를 되짚어 보고, 향후 정부의 미래 수자원 정책방향을 비롯한 자연친화

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하천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본 행사의 사회자인 협회 전승훈 하천환경위원장(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세미나의 개회식은 한국하천협회 김창세 회장의 개회사와 「제7회 하천사진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서 진행되었다.

협회 김창세 회장은 개회사에서 “21세기는 물산업의 시대이며 물 산업은 이미 블루골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새

로운 국가적 성장동력의 측면으로도 물 산업은 반도체 시장보다 2배 이상 큰 시장이며 연평균 6.5%의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로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산업시장에서 물 강국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구축하게 되었음은 물론 축적된 노하우 및 신기술을 근간으로 또 다른 해외시장의 개척의 길이 열리고 있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계속해서 "이는 여기 모이신 하천 전문가 여러분의 그간의 헌신과 하천에 대한 적극적인 열정에서 비롯된 산물임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하며, "이번 세미나가 참가자 여러분께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개발한 물 산업 선진기술이 21세기 초일류 국가의 목표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제7회 하천사진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대상으로 당선된 황은숙씨(아름다운 자연의 계곡)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상이 수여되었으며, 금·은·동상을 포함한 각 부문의 수상자에게 협회장상이 수여되는 등 총 24편의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개회식 후 본격 진행된 주제발표 순서에는 정부 정책방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총 5명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인 국토해양부 이우제 하천계획과장의 「미래 물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희규 유지관리팀장의 「4대강 사업 이후 하천관리 방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규호 하천해안연구실장(그린리버연구단장)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기술 개발과 적용」이 발표되었다.

계속해서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이형 교수의 「하천수질관리의 과제와 선진기술의 동향」과 한국수자원공사 이규남 친수개발팀장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강연이 이어지며 모든 주제발표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부대행사로 함께 마련된 「제7회 하천 사진공모전」 당선작의 작품전시회는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출품된 모든 작품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아름다운 하천의 모습을 일구어 나가는데 유익한 토양이 될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협회는 이번 『2012 하천관리 정기세미나』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새로운 수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우리의 소중한 하천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며, 향후 하천분야의 주요 사안인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더욱이 전년도(2011년) 《민》 위주의 참여행사로 처음 개최된 이후, 다시 회원 및 공무원을 비롯한 관·산·학·연 등의 모든 하천분야 전문가(종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됨으로서, 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워크숍」 행사(봄철)와 함께 하천분야 유일의 가을철 연례행사로 다시 한 번 위치하게 된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도 하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바람직한 하천관리의 방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하천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